유럽 近代化에 관한 一考察

閔 錫 泓*

一. 序 言

駐日美大使 라이샤우아氏는 「近代化란 무엇인가」라는 짧은 論文에서 近代化가 아직도 널리 進行中이므로 이에 관한 完全한 定義를 내리기가 힘들고 近代化와 西歐化는 일단 구별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말하였다①. 매우 妥當한 見解이다. 아시아·아프리카의 大部分의 地域에서 近代化가 現在 進行中임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고 유럽이나 아메리카大陸에서도 東歐나 中南美의 一部 地域에서는 近代化가 進行中에 있다. 그러나 美國을 包含하여 유럽의 主要國家들 즉 英國. 프랑스. 獨逸. 이탈리아. 러시아等에서는 벌써 近代化가 一段落을 짓고 끝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全世界的인 規模로 近代化의 定義를 내리기는 힘들지 모르지만 적어도 유럽의 近代化에 관해서는 定義를 내리기가 不可能하지는 않다.

유럽의 近代化過程을 整理하여 定義를 내리는 것이 可能할 뿐 아니라 그것은 또한 必要한 일이기도 하다. 아시아·아프리카의 이른바 後進 내지 低開發國家②의 近代化가 여러 모로 유럽의 近代化와 반드시 同一하지 않을 것이라는 徵兆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편 매우 當然한 일이라고 하겠다. 過去의 傳統이 다르고 주어진 歷史的 與件이나 環境

---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敎授·西洋史學

① Edwin O. Reischauer, Toward a Definition of "Modernization" 日米 フォーラム, 1965年 1月號

② 여기 「後進」 또는 「低開發」이라고 한것은 一般的인 用法에 따랐을 뿐이다. 다만 아시아·아프리카의 여러나라가 現在 達成하려고 努力하고 있는 近代化를 이미 達成하였다는 點에서라도 유럽의 主要國家를 「先進」이라고 할수 있을것 같다.

이 다른 以上 유럽의 近代化와 아시아·아프리카의 近代化가 同一한 過程을 밟을 수는 없고, 또 그 結果가 반드시 똑 같아야 한다는 법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의 넓은 地域內에서도 반드시 近代化가 同一한 過程으로 이루어진다고는 말할 수 없고 近代化의 速度에 있어서도 差違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事態는 近代化를 歷史的 槪念으로 設定해 보려는 歷史家나 社會科學者에게 當惑과 混亂을 주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最上의 方法은 大部分의 地域에서 近代化가 完成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近代化가 內包하고 있는 實踐的인 面으로 보아 너무나 迂遠한 일일 뿐 아니라 方法論的으로 보아 과연 最上인가도 疑心스럽다. 筆者의 생각으로서는 近代化가 一段落짓는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整理해 나가는 것이 어떨가 한다. 즉 近代化가 일단 매듭을 지은 유럽의 경우를 整理하고 其他 地域에서 近代化가 一段落짓는 곳을 차례로 整理하여 이를 서로 比較檢討하고 그들 사이의 共通되는 面과 相違한 點. 그리고 共通性과 相違한 點을 招來한 歷史的 要因等을 摘出해 내는 것이다. 이 경우 警戒해야 할 點은 實踐的인 意圖가 앞서서 近代化의 어느 一面이 지나치게 强調되거나 誇張되어서는 안된다는 點이다. 어디까지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個別的으로 各地域 내지 國家의 近代化過程이 正確하게 客觀的으로 把握되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把握된 客觀的이고 正確한 近代化의 여러 타입(型) —그것이 단 하나일 수도 있지만— 이 比較硏究의 土臺가 되어야 할 것이다.

「近代化」와 「西歐化」가 반드시 同一하지 않고 따라서 일단 구별해야 한다는 見解는 매우 妥當하다. 그러나 이것이 유럽의 近代化를 度外視해도 좋다, 또는 問題삼을 必要가 없다는 생각으로까지 擴大된다면 問題가 달라진다. 아시아·아프리카의 近代化가 유럽의 그것과 同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度外視해도 좋다는 論法은 成立하지 않을 뿐 아니라 現實的으로 그럴 수도 없다. 우리는 좋든 싫든간에 유럽이 먼저

近代化를 達成하였다는 事實과 아시아·아프리카의 變化 —그것이 반드시 近代化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가 유럽의 刺戟에 起因하였다는 事實을 歷史的인 事實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유럽의 刺戟이 文化的인 精神的인 것에 그치지 않고 大部分의 경우 植民地經營내지 帝國主義라는 樣相下에 주어졌기 때문에 아시아·아프리카에서의 유럽에 대한 政治的 내지 感情的인 反撥이 있는 것은 當然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反撥이 유럽의 近代化에 대한 無視의 態度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歷史的事實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올바른 態度라고도 할 수 없다. 유럽의 近代社會에 反撥을 하든 또는 그것을 模倣하려고 하든 유럽의 近代化를 無視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은 유럽의 近代化를 다른 모든 社會가 반드시 追從해야 할 모델 케이스 즉 模範型이라는 뜻에서 하는 것은 決코 아니다.

本論文은 以上과 같은 理由와 見地에서 유럽의 近代化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實踐的으로는 보다 더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유럽 近代化를 可能케 한 根本要因等은 筆者의 能力밖에 속하고 또한 歷史家의 領域을 벗어나는 面도 없지 않은 複雜한 問題이므로 本論文에서는 일단 除外하고 主로 유럽의 近代的인 發展의 큰 줄거리만을 現象的으로 要約整理하는 데 그치지 않을 수 없다. 그 結果 內容이 皮相的이고 常識的인 것이 되어버린 感이 없지 않다. 그리고 筆者는 可能한 限 客觀的으로 살피려고 努力하였으나 그러한 努力에는 언제나 歷史家에게 붙어다니는 限界가 있었다는 事實, 즉 아시아·아프리카 특히 우리나라의 近代化라는 現實的이고 實踐的인 問題가 筆者의 念頭를 떠나지 않았다는 事實을 告白하지 않을 수 없다.

二. 近代化의 時期

유럽의 近代化에 있어 가장 중요한 劃期的인 事件은 프랑스革命과 産業革命이었다. 이 두 事件을 契機로 유럽의 近代社會가 成立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러나 이 두 事件이 契機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두 事件으로 因하여 유럽 近代社會가 突然 確立을 보게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革命으로 이루어진 거의 모든 것이 이미 數世紀 前부터 싹트고 發展하고 있었으며 프랑스革命 그 自體도 뚝그빌(A. de Tocqueville) 以來 突發的인 것이 아니라 「멀리서 부터 徐徐히 準備된 것」이 었고 過去와의 完全한 斷絕이라기보다 오히려 過去와의 連續이요 近世初부터의 近代的인 諸發展을 急激하게 劇的으로 完成시킨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③

産業革命의 경우도 비슷하다. 産業革命으로서 近代 産業資本主義가 完成되고 機械文明時代가 到來하고 工場制度(factory system)가 成立하였지만 工場制度의 先驅形態인 「매뉴팩츄아」(manufacture)가 産業革命以前에 發展하고 있었고 産業資本主義도 일찌기 16世紀頃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이다. 뿐만 아니라 美國의 經濟史家 네프教授(J. U. Nef)는 1540~1640年 사이에 英國은 第1次(또는 初期)産業革命을 겪었다고 主張하고 그것은 19世紀 유럽에서의 民主主義 勝利의 길을 마련하였다고까지 말하고 있다.④

以上과 같은 事實로 미루어 볼 때 유럽의 近代化가 프랑스革命과 産業革命을 契機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유럽近代化의 始發點은 이보다 훨씬 앞선 時代로 올라가서 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一般的으로 유럽의 近代社會는 中世封建社會의 崩壞過程에서 싹이 텄다고 말할 수 있다. 封建社會의 崩壞期를 언제로 잡느냐에 관해서는 學

③ A. de Tocqueville, *L'Ancien Regime et la Revolution*, 1856.
④ J. U. Nef, *Industry and Government in France and England*, 1957.

者들 사이에 區區한 意見이 있고 또한 地域에 따라 差違가 있지만 大體로 14.5世紀라고 보아서 무난할 것 같다. 그러면 이 時期에 유럽의 近代化가 本格的으로 進行되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을까. 獨逸의 經濟史家 뤼트게(F. Lütge)는 「中世와 近世를 區分하는 素朴한 二分法을 끝까지 固執한다면 中世는 1350年頃에 끝났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였으나 그 뜻은 1350年頃에 近代라는 完全히 새로운 時代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니다.⑤

14.5世紀는 新·舊의 交替期로서 낡은 社會가 무너지는 속에서 새로운 社會의 싹이 조용히 싹트는 時代였다. 뿐만 아니라 이 時期에 封建的인 要素가 完全히 消滅해버린 것도 아니다. 그後에도 封建社會의 殘滓가 남아 내려가지마는 그래도 16世紀頃서부터는 近代的인 것이 보다 더 현저하게 歷史發展의 主流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14.5世紀는 中世로 부터 近代로의 移行期 또는 거꾸해서 近代의 始動期에 지나지 않으며 16世紀頃서 부터 유럽의 近代化가 本格的으로 進行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다.

西洋史에서 一般的으로 絶對主義라고 부르고 있는 時期 즉 16世紀로부터 18世紀에 이르는 時期야말로 유럽 近代化가 本格的으로 進行되는 時期이며 이 時期에 近代的인 發展이 封建社會의 殘滓를 漸次 압도하면서 優勢해진 끝에 18世紀末로부터 19世紀 初에 걸쳐 프랑스革命과 産業革命을 겪으므로서 19世紀에 유럽 近代社會가 完成을 보게된 것이다.⑥

---

⑤ F. Lütge, *Das 14/15 Jahrhundert in der Sozial-und Wirtschaftsgeschte*, 1950, 日譯 113~114面

⑥ 美國의 로스토우敎授는 經濟成長段階를 傳統的社會. 跳躍을 위한 先行條件充足의 段階(過渡期社會). 跳躍段階. 成熟段階, 그리고 大衆消費의 時代로 五分하고 近代社會로의 跳躍段階의 時期를 다음과같이 設定하고 있다.

英國——1783年 이후의 20年間
프랑스——1830年 以前의 數十年間
獨逸——19世紀의 3.4半期
러시아——1914年에 앞서는 25年內外의 期間

이렇게 본다면 유럽의 近代化는 그것이 비교적 빠르고 自生的이었던 英國과 프랑스의 경우라도 적어도 4世紀라는 長期間에 걸친 發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三. 政治面에서의 近代化

유럽의 近代社會는 앞서도 指摘한 바와 같이 中世 封建社會의 崩壞속에서 이를 克服하면서 成長하였기 때문에 그 特徵을 把握하려며는 自然 封建社會와의 對照가 必要하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유럽 近代化의 政治面에서의 가장 두드러진 標識으로서는 우선 近代的 國民國家의 成立을 들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封建的인 政治體制의 特色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封建領主의 地方分權的인 支配와 敎皇權내지 皇帝權과 같은 普遍的인 權力의 存在라고 하겠다. 말하자면 現實面에서의 地方割據主義와 精神 내지 理念上에서의 普遍主義가 並存하고 있었다.

이러한 封建的인 政治體制의 打破는 中世 後半期로 부터 國王을 中心으로 徐徐히 進行되었다. 그 結果 16世紀頃에는 絕對主義 國家라고 부르는 中央集權的인 統一國家가 形成되고 官僚制와 常備軍制度도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近世初의 絕對主義 國家의 性格에 관하여 學者들의 意見은 반드시 一致하고 있지 않다. 어느 學派에서는 이것을 封建國家 내지 封建的인 發展의 最終段階라고 보기도 한다. 이러한 見解가 根據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中央集權과 國土의 統一이라는 點에서만이라도 絕對主義 國家는 中世的인 것을 打破하고 近代的인 方向으로 發展하였다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이며 近代國家의 二大 支柱라고 할 수 있는 官僚制와 常備軍制度가 생긴 것도 이 時期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統一

W. W, Rosto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1960, 李相球譯「經濟成長의 諸段階」28面 參照.

國家의 成立은 자연 유럽的인 規模의 國家體系(state system)와 勢力均衡(balance of power)이라는 近代的인 原理를 낳게 하였다. 로스토우敎授도 中央集權的인 統一國家의 成立이 近代化의 必須條件이라는 事實을 다음과 같이 强調하고 있다.

「새로운 民族主義에 誘發된 國民的 團合에 基盤을 둔 강력한 中央集權的 國民國家의 확립이 先行條件 充足의 段階에 있어서의 決定的인 側面이었으며 이는 거의 例外없이 跳躍段階로의 移行을 위한 必須條件이었다.」⑦

그러나 近世初期의 絶對主義 國家는 完全한 意味의 近代的 國民 國家는 아니었다. 地方이나 都市의 中世的인 特權이 部分的으로 남아 있어 中央集權과 國土統一이 不完全하였고 官僚나 軍隊도 國民 또는 國家를 위하여 存在한다기보다 絶對君主나 王朝의 利害關係를 위한 存在였다 社會·經濟面에도 封建的인 要素가 殘存하고 身分制의 殘存은 眞正한 國民的 團合을 阻害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不完全性을 止揚하고 封建的 殘滓를 一掃하여 眞正한 近代的 國民國家의 成立을 可能케 한 것이 이른바 「市民革命」이었다.

政治面에서의 유럽 近代化의 둘째 번 特色은 民主主義이다. 民主主義의 起源은 멀리 올라가 古代 아테네의 直接民主主義로부터 더듬어 볼 수도 있으나 近代 民主主義의 發展은 17世紀頃서부터 뚜렷해진다. 그러나 近代 民主主義가 確立되는 것은 유럽 近代化의 完成期인 19世紀의 일이며 市民革命은 民主主義確立의 가장 重要한 契機가 되었다.⑧

民主主義의 發展은 決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初期에 있어 絶對王權과 殘存하는 貴族的인 封建勢力과 싸워야 했고(市民革命), 市民革命 以後에도 여러번 後退하고 挫折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初期에는 大

---

⑦ W.W. Rostow, *op. cit.*, 李相球譯 25面

⑧ 英國에서는 일찌기 17世紀에 두번의 革命으로 絶對君主制가 打倒되고 議會政治가 發展하게 되었으나 18世紀의 英國의 政治形態는 民主主義와는 距離가멀었다. 英國의 民主主義가 本格的으로 發展한 것은 1832年의 選擧法改正以後의 일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部分의 경우 財産의 條件이 붙은 制限選擧였고 그러한 制限이 完全히 없어지고 女性에게까지 投票權이 주어지게 된 것은 20世紀 初頭의 일이다. 그러므로 民主主義의 確立까지는 그 發展이 가장 순조로왔던 國家에서조차 最少限 3世紀라는 時日이 所要되었다.

라이샤우아氏는 앞서 引用한 論文에서 近代化의 政治形態로서 民主主義가 바람직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全體主義(totalitarianism) 또한 近代化의 政治形態로서 認定해야 한다는 點을 强調하였다. 氏는 자기가 말하는 全體主義가 舊式의 君主支配나 舊式의 獨裁政治와는 전연 다르다는 點을 指摘하고 英國, 프랑스 및 美國과 같이 비교적 일찌기 近代化 過程을 밟은 國家에서는 民主主義가 强하지마는 이들보다 늦게 그뒤를 따른 獨逸·이탈리아·日本 그리고 러시아等은 設或 一時的이나마 全體主義를 採擇하였다고 論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氏는 한 걸음 더 나가서 近代化가 늦인 國家가 急激하게 近代化를 達成하려고 할 때 낡은 要素와 새로운 要素가 重疊되고 이것이 全體主義를 낳게 하는 要因이 되며, 將次 後進國家中에는 이러한 理由로 全體主義體制를 取하는 國家가 많어질것으로 展望하고 있다.⑨

氏의 見解는 매우 興味있을 뿐 아니라 視野를 全世界로 擴大시켜 특히 아시아·아프리카의 近代化 過程을 살핀다면 妥當한 點도 없지 않다. 그러나 問題를 유럽으로 限定시키고 특히 近代化의 定義를 위한 類型的인 把握을 試圖한다면 無條件 首肯할 수 없다. 獨逸과 이탈리아의 政治的 統一이 늦었고 그 近代化 또한 英國이나 프랑스보다 늦어진 것은 事實이지마는 이 두 나라가 다 19世紀末 늦어도 第一次 世界大戰까지는 近代化 過程을 끝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⑩ 設或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第一次 世界大戰後에 나타난 나치즘나 파시즘을 近代化에 隨伴

⑨ Edwin O. Reischauer, *op. cit.*, pp. 15~18
⑩ 註 6을 參照

된 政治形態라거나 近代化를 위한 政治形態라고 하는 것은 나치즘이나 파시즘의 本質을 全然 모르거나 잘못 理解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問題로 삼는다면 獨逸이나 이탈리아가 政治的 統一을 達成한 19世紀의 60年代와 70年代初부터 第一次 世界大戰까지의 時期일 것이다. 이 時期의 獨逸의 政治形態가 「外觀上의 立憲主義」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認定하는 바이지마는 그래도 그것이 그 以前의 專制政治나 20世紀의 全體主義와는 判異하다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이탈리아는 統一後 君主制를 擇하였으나 그것이 絶對君主制가 아니라 立憲君主制였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일 뿐 아니라 基盤이 튼튼하지는 못하였지마는 그래도 自由로운 民主主義가 實施되었던 것도 다 아는 事實이다. 이탈리아는 第一次 世界大戰以後 얼마 안가서 뭇솔리니가 政權을 잡았지마는 獨逸에서는 社會民主黨이 中心이 되어 民主的인 와이마르共和國이 樹立되고 그것이 發展할 可能性도 充分히 있었던 것이다. 獨逸과 이탈리아에 全體主義가 出現할 潛在的 要因이 있었던 것은 事實이지마는 決코 必然的인 것은 아니었으며. 하물며 近代化에 隨伴된 또는 近代化를 위한 政治形態로서 全體主義가 나타난 것은 決코 아니다.

唯一한 例外가 러시아이다. 러시아가 近代國家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7世紀末 피터大帝 때부터의 일이고 유럽의 政治舞臺에 나타난 것은 18世紀 後半부터의 일이다. 東方的 내지 비잔틴的인 皇帝의 絶對的인 專制政治가 20世紀初까지 계속되어 自由主義와 民主主義의 길을 頑强하게 가로막고 農奴制가 19世紀의 60年代까지 持續된 나라였다. 이러한 環境에서의 러시아의 近代化가 遲遲不振하였음은 오히려 當然한 일이었다. 1917年의 革命과 그 後의 共産黨 獨裁는 이러한 러시아의 落後性을 最短時日內에 克服하려는 無慈悲한 努力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로스토우 敎授가 指摘하듯이 共産主義는 이 경우 하나의 社會理想을 具現하였다기 보다는 政權獲得의 手段과 早速한 時日內에 近代化를 達成

하는 方式이었던 것이다.⑪ 그러나 러시아를 과연 유럽에 包含시킬 것이냐에 관해서는 問題가 없지 않다. 토인비敎授(Arnold J. Toynbee)는 「歷史의 硏究」(A Study of History)에서 文明圈을 設定함에 있어 러시아를 西歐文明社會로부터 除外시키고 있다. 이 問題를 여기서 詳論할 수는 없지마는 러시아의 歷史的 傳統으로 보아 러시아는 보다 더 유럽的이기는 하지마는 유럽과 아시아의 中間에 位置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近代化를 達成하여 로스토우敎授가 말하는 高度大衆消費의 段階를 맞이 할 수 있게 된 러시아가 장차 유럽로 기우러질 것인가 또는 아시아的인 性格을 그대로 維持할 것인가의 問題는 世界平和의 問題와 直接 관련을 가진 興味있는 問題이며, 中共과의 論爭, 유럽과의 平和共存 政策等으로 미루어 러시아는 유럽쪽으로 기우러지는 듯한 印象을 주고 있으며, 萬一 그렇다면 그들이 共産主義를 버리고 民主主義를 擇한다고는 말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共産主義에 變化가 생길 可能性이 없지도 않은 것이다.

以上 論한 바와 같이 빠르고 늦은 差違가 있고 若干의 變形이 없지 않으나 近代的 國民國家의 成立과 民主主義야말로 유럽에서의 政治的 近代化의 所産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三. 社會·經濟面에서의 近代化

社會·經濟面에서의 유럽의 近代化에는 무엇 보다도 重要한 두 개의 先行條件이 必要하였다. 그 하나는 莊園制度 내지 農奴制라는 封建的 土地所有關係의 解體요, 둘째는 共同體的 規制의 消滅이다. 유럽 各國의 경우를 個別的으로 살펴 보면 이 두 先行條件의 充足度와 그 社會의 近

⑪ W.W. Rostow, Non-Communist Manifesto, "Economist", 15 and 22 August, 1959, 李相球譯「反共産黨宣言」58面以下 參照

代化가 어느 정도 相應하고 있는 것을 發見할 수가 있다.

封建的 土地所有關係의 解體와 共同體的 規制의 消滅이 가장 순조로왔던 경우가 英國이며 이 英國에서 近代的인 經濟發展이 가장 순조롭고 빨랐던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英國에서는 賦役의 金納化(Commutation)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어 13世紀에 一部地方에서 賦役이 다시 强化되는 傾向을 보이더니 14.5世紀에는 다시 金納化가 促進되어 莊園制度 내지 農奴制가 全面的으로 무너지게 되었다. 이러한 發展을 基盤으로 하여 「요맨리」(Yeomanry)라고 부르는 「中產的인 農民層—토오니敎授(R. H. Tawney)의 말을 빌리면 「富裕한 農村의 中產階級」이 形成되고 그들을 中心으로 위로는 近代的 地主와 資本家的 農業經營者, 밑으로는 農業勞動者로의 階層分化가 進行되었다.

이와 더불어 近世初에 일어난 「인클로쟈」(Enclosure)運動은 農民의 階層分化를 한층 더 促進시키는 동시에 共同體的 規制의 消滅의 중요한 契機가 되었다. 英國은 中世를 통하여 良質의 羊毛生產國이었으나 中世末로 부터 近世初에 걸쳐 毛織物工業이 일어나고 그것이 漸次 國民的 產業으로 發展함에 따라 國內에서의 羊毛需要는 急激하게 增加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地主나 大農들은 羊을 飼育할 牧場을 마련하기 위하여 小農이나 貧農의 土地를 收奪하고 共有地를 侵犯하고 農土의 集中等을 强行하여 牧場을 만들어 그 周圍에 울타리를 쳤던 것이다. (「인클로쟈」) 토마스 모아(Thomas More)의 表現을 빌린다면 「溫順한 羊이 집과 땅과 사람을 집어 삼키」는 事態가 벌어진 것이다. 그 結果 中世的인 共同體的 規制가 허무러지는 同時에 農民의 階層分化가 한층 더 促進되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와 약간 달랐다. 프랑스에서도 中世末에는 農奴解放이 비교적 일찍기 시작되고 賦役의 金納化도 進行되었으나 近世初에 一種의 「封建的 反動」으로 因하여 貨幣地代로 變化하던 封建地代가 生產物地代로 固定되고 「인클로쟈」運動에 비할 發展도 없어 共同體的 規

制도 存續하게 되었다. 그 結果 프랑스의 農民은 自由로운 몸이 되고 그의 土地를 自由롭게 賣買·贈與·相續할 수 있는「土地所有者 農民」이 되었으나 生産物地代라는 封建的 負擔을 實質的으로 벗어나지 못한채 프랑스革命을 맞이 하게 되었다. 한편 共同體的인 性格이 消滅하지 않고 强하게 殘存하는 同時에 農民層의 階層分化도 느려 18世紀의 프랑스는 半封建的 小土地所有者 農民의 나라라는 規定을 받게 되고 프랑스農村의 이와 같은 性格은 프랑스革命時의 農民運動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東部 獨逸이나 러시아의 경우는 프랑스와도 다르다. 러시아에서 19世紀 中葉까지 農奴制가 持續되고 60年代의 農奴解放도 不完全한 것이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지마는 東部 獨逸에서는 中世末까지 農民의 地位가 良好하고 점차로 向上하다가 近世初에 들어와서 그 地位가 逆轉되어 버렸다. 즉 農民은 다시 隷農으로 轉落하고 領主는 이러한 隷農의 勞動을 土臺로 市場을 目標로 한 穀物生産을 위한 農場經營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른바「農奴制의 再版」이라고 불리워지는「Gutsherrschaft」이다.⑫

以上과 같이 封建的 土地所有關係의 解體過程의 具體的 內容이 各國에 있어 서로 다르지마는 共同體的인 規制의 消滅과 더불어 그것이 유럽 近代化의 基本的인 先行條件이었음에는 疑問을 던질 餘地가 없다. 賃金勞動과 資本에 立脚한 近代 資本主義의 發展과 市民階級의 成長은 各國에서의 이러한 基本的인 先行條件의 充足度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經濟面에서의 유럽의 近代化가 近代 資本主義의 發展과 步調를 같이

---

⑫ 以上의 叙述은 유럽經濟史의 常識에 속하는 것이므로 일일히 典據를 들지 않았다. 英國·프랑스·東獨의 農民에관한 類型的인 把握에 있어서는 革命前의 프랑스農民에 관한 卓越한 綜合的叙述을 보여주고 있는 J. Loutchisky, *L'état des classes agricoles en France à la veille de la Révolution*, 1911, pp. 11~12 에서 많은 示唆를 받았다.

하고 있으며 近代 資本主義가 18世紀末 英國에서 시작된「産業革命」즉 機械의 發明과 새로운 動力의 利用으로 이러난 産業上의 劃期的인 變革으로 비약적인 發展을 하게 되고 그 體制가 完成되었음은 여기서 詳論할 必要가 없을 줄 안다. 애슈톤(T. S. Ashton)教授는 産業革命이 무엇을 意味하였는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冷酷한 觀察을 하고 있다.

> 이 時代(産業革命期—筆者註)의 中心 課題는 以前의 어느 時代보다도 훨씬 더 增加하게 된 人口를 어떻게 먹여 살리고 옷을 입히고 處遇하느냐의 問題였다. 아이르랜드도 同一한 問題에 逢着하였다. 그러나 이 問題의 解決에 失敗한 아이르랜드는 1840年代에 移民 또는 飢餓 또는 疾病으로 人口의 5分之1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英國이 萬一 耕作者와 手工業者의 나라로 그대로 머물렀더라면 英國도 그와 같은 運命을 免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며 設或 그것을 免했다 하더라도 增大하는 人口의 壓力은 英國民의 精神을 壓殺하고 말았을 것이다. 英國은 이러한 事態로부터 救濟되었는데 그것은 支配者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生産手段과 産業管理의 새로운 方法을 考案해 낼만한 知力과 資力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였다. 오늘 날 印度와 中國의 平原에는 낮에는 勞動을 밤에는 잠자리를 같이하는 家畜의 무리와 적어도 外觀上으로는 별차 없는 疾病과 굶주림에 시달린 男女들이 살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的 生活水準과 이러한 非機械化의 恐怖는 産業革命을 經過함이 없이 人口를 增加시키고 있는 社會가 當面하는 運命인 것이다.⑬

애슈톤教授가 모든 偏見과 主義를 배격하고 事實爲主를 强調하는 經濟史家일만큼 그의 말은 한층 더 迫眞性을 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친다. 오늘날 아시아의 여러 國家가 바로 이「아시아的 生活水準」과「非機械化의 恐怖」를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工業化」(Industrialization)를 近代化의 中心 課題로 삼고 있는 것도 當然하다고 하겠다.

後進國이 一擧에 이「工業化」를 達成하려고 하고 또한 그러지 않으면 안될 切迫한 事態에 直面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마는 유럽의「工業化」는 中世都市로까지 遡及하는 긴 歷史를 가지고 있다. 中世都市에서의

---

⑬ T. S. Ashton, *The Industrial Revolution*, (1760~1830), 1948, p. 161

商工業 活動이 「길드」(gild)라는 制限된 體制의 制約을 받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나타난 旺盛한 企業家 精神 그리고 封建的인 支配層에 대한 反抗속에서 涵養된 自治와 自由의 精神은 그것이 中世的인 制約을 完全히 벗어나지 못한 面이 있다 하더라도 유럽의 近代化와 市民精神의 成長에 無關하지는 않다.⑭

中世都市의 活氣는 都市와 農村, 都市와 都市 相互間의 비교적 좁은交易關係에도 힘입은 바 적지 않지마는 北海貿易 특히 地中海貿易에서 由來한 것이었다. 이 地中海貿易이 셀죽 터어키族의 興起로 衰退할 可能性을 보였을 때 新航路와 新大陸의 發見 즉 이른바 「地理上의 發見」이 이루어져 유럽의 商人과 製造業者에게는 全世界가 그들의 活動舞臺로 열리게 되었다. 이 「地理上의 發見」이 유럽의 商工業의 發達과 市民階級의 成長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强調하여도 지나칠 것이 없다.⑮ 새로운 工業과 企業形態가 나타나고 封建的인 束縛을 벗어난 農村을 舞臺로 農村工業이 展開되고⑯ 새로운 社會의 擔當者가 될 市民階級 내지中產階級이 무럭 무럭 자라나면서 產業革命과 市民革命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끝으로 유럽 近代化의 中心的인 推進勢力이 되고 또한 近代市民社會의 擔當者가 된 市民階級의 成長을 들어야 하겠다. 市民階級 成長의 歷史는 앞서 略述한 工業化의 前史 내지 資本主義 發展의 歷史와 同一하다. 즉 그들의 起源은 中世都市에 있으며 地理上의 發見 以後 비약적인 發展을 하였고 드디어는 市民革命과 產業革命의 主動勢力으로서

---

⑭ 中世都市와 中世로부터 近世初에 걸친 企業家에 관해서는 數많은 硏究가 있으나 앙리 피렌느 (Henri Pirenne)의 *Medieval Cities*, 1934 는 가장 興味있는 또한 많은 示唆를 주는 册이다.

⑮ 「地理上의 發見」이 유럽經濟發展에 미친 영향의 重要性을 最初로 明確하게 認識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Adam Smith)였다. Cf., *The Wealth of Nations*, Book IV, Ch. 7, E. Cannan Edition, Modern Library, pp. 590~591

⑯ 近世初期의 自由로운 經濟體制가 農村工業을 中心으로 發展하고 그것이 相當히 廣範하게 存在하였다는 事實은 유럽에 特異한 同時에 注目할 現象이라 하겠다.

近代 市民社會를 確立시켰다. 그러므로 市民階級의 成長度와 그 質的 量的 强度는 各國에서의 近代化를 測定하는 바로메터이기도 하다.

여기 한가지 注意할 點은 中世都市에 起源을 가지는 긴 歷史를 가진 市民階級이 언제나 同質的인 것은 아니었다는 事實이다. 앙리 피렌느는 中世以來 經濟的 發展이 거듭됨에 따라 變革期마다 새로운 資本家群이 出現하여 새로운 事態에 適應하고 새로운 問題를 進取的으로 解決해 나갔다는 興味있는 見解를 披瀝한 바있다.⑰ 「地理上의 發見」으로 齎來된 經濟的 變革을 「商業革命」(Commerc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거니와 이 商業革命 初期에 舞臺의 前面에 나서서 活躍한 것은 대개가 政治權力과 結托한 特權商人이나 獨占商人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背後에서 보다 더 獨立的이고 自由로운 活動을 원하는 國民的이라고도 부를 새로운 商人과 製造業者가 자라나고 있었으며 얼마 안가서 特權을 排除하면서 舞臺의 前面에 나서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막스 웨버(Max Weber)의 有名한 命題를 빌린다면 이들이야 말로 人類의 歷史와 더부러 오랜 營利欲만이 아니라 「世俗內 禁欲의 倫理」를 받아 드려 合理的인 近代資本主義精神을 具現한 사람들이었다.⑱ 여기서 筆者가 强調하고 싶은 點은 유럽 近代化의 擔當者가 된 市民階級은 그 構成要素를 달리하면서 時代의 變遷에 따라 새로운 型의 企業家가 出現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새로운 精神의 體得者요 實踐者이기도 하였다는 事實이다.

四. 近代化의 精神的 要因

社會意識 내지 精神面에서 前近代性과 近代性을 어떻게 識別할 것인

---

⑰ Henri Pirenne, The Stages in the Social History of Capitalism,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914, Vol XIX, No. 3

⑱ Max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1904~1905. 拙稿「宗敎改革과 近代社會의 成立」文理大學報 第二卷 第一號 1954年 參照

가는 그리 쉬운 問題가 아니다. 그러나 多幸히도 最近 高永復教授는 「韓國社會構造의 分析」(「新東亞」 1965年 2月號)이라는 論文에서 우리나라의 現實과 연관시켜 이 問題에 대한 매우 鮮明한 解答을 提示하였다. 筆者는 그것을 다시 要約하여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避하고 유럽自體에 視野를 좁혀 强調하고 싶은 몇가지 事實만을 指摘하는데 끝이고저 한다.

앞서 引用한 애슈톤教授는 產業革命을 可能케 한 要因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 土地, 勞動 그리고 資本의 供給이 相互關聯的으로 同時에 增加함으로써 產業의 膨脹이 可能해졌다. 石炭과 蒸氣機關은 大規模 工業에 必要한 燃料와 動力을 提供하였다. 利子의 低率, 價格의 騰貴 및 높은 利潤의 期待는 動機를 提供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物質的 經濟的 要因外에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무엇이 있었다.⑲

이 「또 다른 무엇」이란 로스토우教授가 「外界가 認識할 수 있는 몇개의 法則下에 움직이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組織的으로 生產的 操作을 加할 수 있다는 認識」⑳과 그 所產임에 틀림없다. 이 認識은 유럽近代에 特有한 것이며 古代를 凌駕하여 오늘의 自然科學의 發達을 가져오고 產業革命과 끊임없는 科學技術의 發展을 可能케 한 精神이다.

이러한 認識과 매우 密接한 관계를 가지면서 유럽 近代化에 중요한 힘이 되고 또한 유럽 近代社會를 채웁고 있는 것이 合理主義이다. 막스 웨버가 心血을 기우린 宗教社會學의 結論은 한 마디로 要約하여 유럽精神의 가장 重要한 特徵으로서 이 合理主義를 指摘하는 데 있었다. 왜 近代 資本主義는 유럽에 特有한 것인가, 科學은 왜 유럽에만 存在하였는가, 近代國家의 支柱인 訓鍊된 官僚도 유럽에서 생겼으며 合理的인 憲法, 合理的으로 制定된 法律, 그리고 合理的인 規則에 따라 運營되는 行政機

---

⑲ T.S. Ashton, *op. cit.*, p.21

⑳ W.W. Rostow, *The Stages*, 李相球譯 20面

構를 具備한 制度로서의 國家 그 自體도 유럽的인 產物이다. 그 理由는 무엇인가. 웨버의 對答은 合理主義였다.㉑

自然界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그것의 人間의 힘—理性에 의한 支配可能性의 認識 그리고 自然과 社會에 대한 合理的인 思考와 더부러 유럽 近代化의 動力이 되고 또한 유럽 近代精神의 根幹이 된 것은「進步思想」(Idea of Progress)이 였다.

이 進步思想은 루네상스以來의 科學的인 認識과 合理主義의 所產이기도 하다. 그것은 人間의 힘—理性으로서 制度와 環境을 是正히고 改革하므로서 人類社會의 無限한 進步가 可能하다는 信念이다.㉒ 얼핏 들어서는 新奇할 것이 없는 思想일지 모르나 이러한 信念이 社會에 널리 퍼질 때 그것은 무서운 힘을 發揮하게 되며 또 實際로 發揮하였다.

끝으로 들어야할 것은 集團으로 부터의 個人의 解放과 모든 個人은 어떠한 權力이나 社會集團도 侵犯할 수 없는 人格의 所有者라는 認識과 信念이다. 이러한 獨立的인 精神的 個體(geistes Individuum)로서의 認識은 精神史的으로는 루네상스에 비롯하였으나㉓ 유럽에 있어 特徵的인 것은 이러한 個人의 解放이 農村이나 都市에서의 共同體的인 性格이나 規制의 消滅 내지 弱化와 歷史的으로 同時에 이루어졌다는 事實이다. 즉 觀念的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現實로서 具體化되었으며 따라서 個人의 自由 個人의 權利의 擁護等이 한낱 헛된 口號에 그치지 않고 社會에 뿌리를 밖은 現實的인 要求로 社會의 廣範한 呼應을 받을 수 있었다는 事實이다. 集團的인 것으로부터의 個人의 解放이 決코 全體主義者가 論하듯이 社會나 國家를 原子的인 個人으로 解體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眞正한 近代的인 人間結合의 土台이며 또한 모든 人間은 저마다 누

㉑ G. Masur, Distinctive Traits of Western Civilizatio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LX No. 3 1952, pp. 603~604.

㉒ 進步思想은 啓蒙思想의 主流이지만 그 가장 鮮明하고 勇敢했던 旗手로서는 Condercet, Esquisse d'un tableau historique des progrês de l'êsprit humain 을 參照

㉓ J. Burckhsrdt, *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 12te Aufl., 1er Bd., S. 111

구에게도 讓渡할 수 없는 權利를 가졌다는 信念은 유럽 自由主義의 根幹이요 유럽 近代社會 形成의 原動力이기도 하였다.

五. 結語—유럽 近代化의 理念

유럽의 近代化에 있어 그것을 引導한 어떤 理念 내지 理想이 있었을가. 歷史는 複雜한 여러 要素 여러 힘의 結合과 相衝과 對抗으로 進展하는 것이고, 유럽의 近代化는 相當히 長期間에 걸친 發展의 所産이었다. 그러므로 그 出發點부터 어떤 뚜렷한 理念을 찾아 볼 수는 없으나 近代化 過程이 一段落을 지은 오늘에 있어서는 헤겔(Hegel)式의 觀念論的인 立場에서가 아니라 具體的인 歷史的 發展의 史實을 通하여 이를 찾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自由」와 「平等」의 理念이다. 이의 內容을 說明할 必要를 느끼지는 않으나 한 가지 强調해 두고 싶은 것은 自由와 平等이 별개의 것으로, 相互 遊離되고 獨立한 것으로, 더구나 兩者擇一的인 것으로 提示된 것은 決코 아니라는 點이다. 즉 自由와 平等은 어디까지나 不可分의 것으로 그 어느 한 쪽이 없어도 不完全한 것으로 把握되었던 것이다.

自由와 平等의 理念은 具體的으로는 프랑스革命의 理念으로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革命이라는 크기는 하지만 하나의 革命의 理念으로서 그치지를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 때까지의 유럽의 近代的인 發展을 綜合하는 同時에 未來에 대한 課題로서 提示되었다.㉔

유럽의 近代化가 一段落을 짓는 19世紀와 20世紀의 歷史는 유럽의 近代化가 成就한 것을 그 理念에 비추어 是正하고 改革하고 이를 가로막

㉔ Georges Lefebvre, La Révolution francaise dans l'histoire du monde, dans "Études sur la Révolution francaise", 1954.

는 勢力과 鬪爭한 歷史였고 아직도 그 過程은 끝나지 않고 있다. 第1次 世界大戰後 한 때 유럽 近代文明의 危機가 問題가 되고 一部에서는 全體主義와 共産主義가 이러한 危機를 克服하는 體制인양 秋波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自由와 平等의 理念이 유럽 近代化의 理念일진데 全體主義나 共産主義는 決코 유럽 近代化를 繼承할 嫡子가 아닌 것이다. 全體主義나 共産主義는 오늘 날 오히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後進國家에서의 早遠한 近代化의 手段으로서 새로운 脚光을 받고 있다. 果然 全體主義와 共産主義가 後進國家에서의 近代化의 가장 効果的인 方法일가. 유럽의 近代化가 達成하고 아직도 發展途上에 있는 民主主義는 정녕 後進國家에는 適合하지 않은 것일가. 유럽 近代化의 理念인 自由와 平等은 우리에게는 無用之物이며 우리의 近代化에는 無緣한 것일가. 이러한 問題는 本論文의 範圍밖에 속한다. 그러나 한마디 添付하고자 하는 것은 歷史의 發展은 決코 必然的인 것이 아니며 歷史的 現實과 環境의 힘이 아무리 强하다 하더라도 決局 한 社會 한 國家의 歷史發展은 그 社會와 國家 그리고 그 構成員인 各個人의 選擇에 달려 있다는 事實이다. 그리고 이 選擇에는 必然的으로 價値判斷이 隨伴되는 것이며 理想과 理念이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事實이다. 이에 筆者는 유럽의 特殊한 歷史的 發展의 産物인 自由와 平等의 理念의 普遍性을 모든 사람에게 工業化를 위하여는 다른 모든 것을 犧牲하여도 좋다고까지 생각하는 過激論者로부터 아시아의 近代化에 關心을 가지고 있는 美國이나 유럽의 民主主義者에 이르기 까지 모든 사람에게 묻고싶은 것이다.